

각 문항에서 본인에게 더 가까운 답변을 골라주세요.

파트별로 질문은 각각 7개이며,
답변을 취합하여 본인의 유형을 파악하길 바랍니다.

[Part 1] S vs X : 학습 구조 및 유연성 (7문항)

질문 의도: 계획의 정밀도와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측정합니다.

Q1.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스타일은?

- A) 시간 단위로 춤춤하게 짜여진 **'타임테이블'**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. (S)
- B) 그날 해야 할 큰 덩어리 위주의 **'체크리스트'**면 충분하다. (X)

Q2.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을 만났을 때 당신의 반응은?

- A)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읽는다. (S)
- B) 일단 끝까지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먼저 파악한다. (X)

Q3.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당신은?

- A) 깔끔하게 정리된 형식과 규격화된 포맷에 기록하는 것을 선호한다. (S)
- B) 핵심 위주로 빠르게 적거나 문제 옆에 자유롭게 메모하는 편이다. (X)

Q4. 정해진 공부 루틴이 깨졌을 때 당신은?

- A) 흐름이 끊겨 불안함을 느끼며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. (S)
- B) "그럴 수도 있지"라며 남은 시간 동안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한다. (X)

Q5. 문제 풀이 전략을 세울 때 당신은?

- A) 선생님이 알려준 정석적인 풀이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. (S)
- B) 상황에 따라 나만의 직관이나 변형된 풀이법을 시도해보는 것을 즐긴다. (X)

Q6. 복습을 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?

- A)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인 복습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. (S)
- B)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약 단원부터 골라서 복습한다. (X)

Q7. 시험장 가이드나 매뉴얼이 있다면?

- A) 행동 강령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한다. (S)
- B) 큰 틀만 이해하고 현장의 컨디션에 맞춰 대응하는 편이다. (X)

[Part 2] T vs P : 판단 기준 및 동기 부여 (7문항)

질문 의도: 문학/비문학 해석 스타일과 감정 조절 방식을 측정합니다.

Q8. 시(Poem)나 소설을 읽을 때 당신은?

- A) 화자의 상황과 시어의 의미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분석한다. (T)
- B) 주인공의 감정에 깊이 이입하며 정서적 울림을 먼저 느낀다. (P)

Q9. 선생님께 상담이나 피드백을 받을 때 더 힘이 되는 말은?

- A) "너의 약점은 이 부분이야.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." (T)
- B) "요즘 많이 힘들지? 너의 노력과 가능성은 믿어. 조금만 더 힘내자." (P)

Q10.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 당신의 주된 생각은?

- A) "내가 왜 이 선택지를 골랐지? 이 사고 과정의 논리적 오류가 뭐지?" (T)
- B) "아, 아쉽다! 이때 내가 왜 이런 기분으로 문제를 풀었을까?" (P)

Q11. 당신을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보상은?

- A) 모의고사 성적표에 찍힌 객관적인 점수와 등급의 상승. (T)
- B)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받는 진심 어린 인정과 응원. (P)

Q12. 스터디 그룹이나 반 분위기에서 당신의 역할은?

- A)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해결사. (T)
- B) 지친 친구들을 다독이고 화목한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 활력소. (P)

Q13.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당신이 더 선호하는 글은?

- A) 과학, 경제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데이터가 확실한 글. (T)
- B) 인문, 예술처럼 인간의 가치나 철학적 사유가 담긴 글. (P)

Q14. 공부 계획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?

- A) 감정을 배제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내일 분량을 재조정한다. (T)
- B) 자책감이 들거나 속상한 마음이 생겨 한동안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. (P)

[Part 3] I vs E : 에너지 집중 및 환경 (7문항)

질문 의도: 최적의 공부 환경과 집중력 유지 방식을 측정합니다.

Q15. 당신이 가장 몰입하기 좋은 공부 장소는?

- A) 칸막이가 있고 타인의 시선이 차단된 조용한 독서실. (I)
- B) 적당한 소음이 있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개방형 카페. (E)

Q16.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대처는?

- A) 답답하더라도 해설지를 보지 않고 혼자서 끝까지 고민해본다. (I)
- B) 친구나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토론하며 해결책을 빨리 찾는다. (E)

Q17. 쉬는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은?

- A)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혼자 음악을 들으며 정적인 휴식을 취한다. (I)
- B) 친구들과 매점에 가거나 수다를 떨며 활동적인 휴식을 취한다. (E)

Q18.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 더 잘 이해되는 방법은?

- A) 교재를 정독하며 머릿속으로 조용히 구조를 그려보는 것. (I)
- B) 소리 내어 읽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해보는 것. (E)

Q19.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당신의 태도는?

- A) 배속을 높여 빠르게 핵심만 파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에 쓴다. (I)
- B) 선생님의 농담이나 리액션까지 즐기며 함께 호흡하는 느낌으로 듣는다. (E)

Q20. 시험 기간에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은?

- A) 하루 정도 일찍 귀가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한다. (I)
- B)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외부 활동을 한다. (E)

Q21.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 당신은?

- A)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내 시험지만을 보며 차분하게 가채점한다. (I)
- B) 친구들과 모여 답을 맞춰보며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이야기를 나눈다. (E)